



아시아리뷰  
제13권 제3호(통권 29호), 2023

## 아시아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

[www.kci.go.kr](http://www.kci.go.kr)



## 서문: 아시아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

홍석경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아시아의 한류에 대한 아시아리뷰의 특집 소식을 듣고 반가우면서도 어려움이 느껴졌다. 그것은 복잡한 상황의 아시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류 연구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sup>1</sup> 온라인에서 한류현상을 관찰하든, 여행자로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이동하며 경험하든 한류의 증거와 흔적은 도처에 있다. 이것을 이리저리하다고 기술하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몫이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술이론과 방법론의 패러다임 안으로 그 현상을 이끌어 와 분석하고 해석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류라는 새로운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인식론적 질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한류 현상이 급격하고 격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부른 진단들은 난무하고,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 지식생산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이곤 했다. 학자들의 상상보다 항상 앞서서 더 빠르게 전개되어 온 한국대중문화의 성공에 대한 연구는 두 방향의 평가절하를 맞곤 했다.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인데 긴 시간을 투여해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는 태도와, 성공의 원인을 역추적하는 뒷북 연구일 뿐이라는 폄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류연구자가 꺾어야 하는 난점들 또한 무시되기

<sup>1</sup> 한류에 대한 확대된 정의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현상들의 일체를 촉발시킨 것은 한국 매체문화다. 따라서 이 특집에서도 한류는 미디어가 매개한 한국 대중문화의 외국에서의 인기현상으로 지칭하고, 그것이 촉발한 한국 대중문화, 일상문화의 영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일쫓았다. 이제 한류현상이 아시아를 넘고 세계적 대중문화의 일부로 수용되는 단계에 이르자 이러한 태도는 줄어들고 한류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동안 한류연구의 대다수를 점거해 온 정책과 산업, 소위 “한류의 경제 효과”와 “성공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넘어서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류현상을 이론적이고 맥락적으로 연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 커뮤니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류연구는 이러한 학술담론 형성의 어려움뿐 아니라 방법론적인 어려움을 지닌다. 근본적으로 전파(Propagation)의 결과가 아니라 수용(Reception)인 한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시적인 정책연구(정부의 발표, 투자, 상호협약 등) 및 산업적 수치(수출입 결과, 광고시장, 연관판매실적 등)가 보여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수용현상의 다차원적 실천과 의미생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가 있고, 한류는 전 세계적 현상이므로 당연히 언어장벽과 문화장벽이라는 거대한 난점을 극복해야 했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 부분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A라는 아시아 국가의 한류현상을 연구하는 외국어는 영어밖에 못하는 연구자(이 경우가 다수임)의 경우, A국가라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영어로 쓰여진 기존 연구들을 읽고, 영어가 기본어인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A국가에 대해 영어로 토론되는 내용을 참조하고, A국의 영자신문, 영어권 신문에 실린 A국의 한류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연구자가 연구비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통역자의 도움을 얻어 A국어로 쓰여진 서류, 데이터를 번역해서 보고(이 또한 이미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소수의 것들만 번역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수용자 인터뷰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무리 충실하고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향과 오역이 가능할지, 무엇보다 인식론적 사각이 형성될지 잘 알 수 있다. 그 대표적 음영지가 협한에 대한 연구들이다. 신기하게도 협한연구들은 대부분 자국어로 쓰여 있어서 영어중심 검색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협한의 원인도 지역적 맥락을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다. 그 결과 협한은 한류를 시장이나 소프트파워 정책중심으로 접근하는 주체들에게 가장 관심 있을 내용이면서도 완전한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지역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아시아는 한류현상이 최초로 관찰된 곳이고, 가장 오래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미디

어문화연구자들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후의 한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넷플릭스의 개입과 <오징어게임>류의 장르물들, 이벤트형 성공작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시아 국가들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기존의 한국 드라마들이 드러난다. 즉 전통적인 한국 드라마 제작 주체들인 방송사, 주요 제작사가 만들어서 방송사에 납품한 로맨스와 멜로, 역사물들이 꾸준히 아시아 각국의 시청률 탑10 리스트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강력한 플랫폼의 매개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기존 영향력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건재하다는 증거이고, 다른 관찰들을 더하면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국가들에서는 한국 미디어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한류는 과거처럼 자국 방송사의 방송권 구매에 의지하지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의 매개에만 백 퍼센트의 존하지 않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개인 미디어에 의해 동시에 널리 매개되고 있다. 초국적인 문화의 수용현상이고 탑다운 아닌 바텀업, 풀뿌리 현상인 한류가 당장 가시적 시장결과나 정책적 결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유유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아시아리뷰의 한류 특집을 구성하는 네 편의 논문들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모두 제 빛을 발한다. 박소정의 논문은 한류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저자가 속한 한류연구센터의 중요한 과제이기도하고, 한류연구센터가 문을 열기 전부터 저자도 속한 연구자 집단이 누적해 온 분석의 집적이기도 하다. 한류연구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출판 논문의 메타분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연구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는 반면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지도가 그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저자가 발견한 내용과 지적은 뼈아픈 것인 동시에 이 분야 연구자들 모두 새겨서 성찰해야 할 내용들이다. 논문은 정형화된 형태의 한류 효과 측정 연구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 아시아 내 한류 연구가 강화하거나 발굴해야 할 의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한류 현상과 인종문제, 한류 콘텐츠가 지닌 문화적 둔감성 등이 그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연구가 한류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기본적인 의지도 없는 시장연구들이고, 아시아 한류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어, 디아스포라와 문화자본 등 아시아의 한류를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개념어뿐 아니라 문

화적 근접성이라는 다소 노획한 개념조차 주제어로 제시된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한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감소하고 언론정보학 분야 내에서 한류 연구가 정체를 맞이한 듯한데, 이것은 실제로 연구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라는 단어 자체를 주제어로 삼지 않는 한류 연구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류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도 더 이상 한류를 굳이 주제어로 앞세우지 않고 수행되는 것을 볼 때, 한류연구가 원초적 축적기를 넘어서 이론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주는 귀한 글이다.

조규현의 일본의 한류 분석은, 한류현상의 중요한 센터 중 하나인 일본에서 한류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잘 설명해준다. 일본의 한류는 더 이상 <겨울연가> 시절 중년여성의 감수성에 소구하는 하위문화가 아니라 중장년 남성의 한국대중문화 수용확대와 인식변화를 통해 주류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K컬처의 새로운 영감 아래서, “일본엔 없고 한국에 있는 게 무엇”이길래 한국의 대중문화 수준이 이리 높은 것인가를 질문하고, 음식, 패션, 뷰티 등 일상문화 속 한국문화가 보편적이고 우수한 대중문화로 인식되어 일본의 주류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속 위상의 변화는 <사랑의 불시착>의 놀라운 인기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것은 박소정·장인희·홍석경이 2021년 『한국언론학보』 62권 3호에 발표한 “일본 내 글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122-16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와 소비에서 더 나아가 케이팝의 힘을 빌어 세계 속에 일본 대중문화를 홍보하려는 사례들도 보인다고 분석한다.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을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 사례는 일본만이 아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의 아이돌 그룹도 케이팝의 제작방식과 팬덤 매니지먼트 방식을 통해 자국 아이돌 그룹을 생산하고 세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케이팝이 일종의 문화 플랫폼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세계와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류와 케이팝의 지나친 영향력에 대한 반감과 혐한 담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제국주의적 힘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3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한류에 대한 최경희의 논문과 중동 3개국에 대한 구기연, 한하은, 안소연의 논문은, 아시아의 한류가 지역화 전문가들의 전문성 속에서 얼마나 더 풍요롭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자는 문화다양성을 헌법적 가치로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수용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표현의 자유, 도시화, 창조경제 이슈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청소년세대(z세대와 post-z세대)에게 케이팝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얼마나 무게를 지니는지도 강조한다. 한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나라마다 어떤 드라마와 케이팝 그룹, 연예인이 인기 있는지, 그리고 드라마 수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를 조사해 누적해 온 한류연구가 지역연구와 만나서 얼마나 맥락적인 새로운 연구결과와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 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문화다양성과 이슬람 가치가 경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문화다양성 사회로 유지 확대되는 데 한류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연구자의 일성은 큰 울림을 지닌다. 저자는 한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문화적 쟁점이 형성되고 인도네시아 사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상호침투 또는 문화접변 현상이 일어나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에게 한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통로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진단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한류의 제3의 공간 역할 진단과 같은 결이다.

중동의 중요한 3개국 사우디, 이란, 터키에 대한 논문은 각국의 정부 정책의 상이한 기초 속에서 한류의 수용 양상도 서로 다르지만, 세 국가 모두 이슬람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고 권위주의 정부라는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한국대중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글이다.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한류의 초기부터 서구 콘텐츠를 대체할 만한 ‘문제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대장금>, <주몽> 같은 한국 역사물들은 이슬람의 여러 문화적 기준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제작의 질과 이국적인 내용, 분투하는 인물들의 풍요한 스토리가 대규모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 왔고 권위주의적 정부의 눈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에서 케이팝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케이팝의 영상문화와 젠더표현 등이 이슬람의 여러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넘어서

서 청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케이팝 문화는 매우 위협하고 잠재적으로 반권위주의적인 힘으로 간주된다. 연구자들은 이란과 튀르키예는 중동 내 한류 확산을 주도했던 국가였던 만큼 대중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외국 문화가 아닌 사회 내에서 하나의 주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류는 새로운 대중들의 저항 문화의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류확산이 정부의 사회적 개방 시도와 평행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중동지역 한류연구는 매우 드물기에 저자들이 결론에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논문의 제한점을 피력할지라도 그 자체로 귀하다. 특히 세계 시장에 수출되고 글로벌 대중문화를 지향한다는 한류와 케이팝의 생산국이 이슬람에 대해 지닌 무지를 생각할 때, 두 논문이 다루는 국가들은 한류생산자들과 한국민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향후 다양한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켜야 할 국가들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연구소 지역연구센터와 한류연구는 상생적 동반자로서 앞으로 많은 협업이 기대된다.

투고일: 2023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3일